

高麗朝 詩風 轉換의 意味

尹 載 煥*

< 목 차 >

- I. 머리말
- II. 詩風 轉換期 이전의 상황과 詩文學
- III. 詩風 轉換期의 상황과 詩文學
- IV. 高麗朝 詩風 轉換의 意味
- V. 맺음말

<Abstract>

The meaning of a poetical style conversion in Koryo
dynasty

Yoon, Jae-Hwan

Koryo inherited poetry creation trend of the former generation being handed down from Unified-Shinla and accomplished internal change and development. This kind's change and development was continued with an idea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a poetical style of Song dynasty introduced into Koryo after settled downed in China was one of the factor encouraging this change and development.

A poetical style of Song dynasty was supposed to be introduced in the middle of 11th century took position of the main part of Koryo chinese poetry and developed through 12th century. By an

* 단국대학교 강사

inflow of a poetical style of Song dynasty appeared after the middle of 11th century many different kind's poetical style, a poetical style of a six dynasty period being existed before Koryo, A poetical style of Dang dynasty based on poetical style of late Dang dynasty, a poetical style of Song dynasty being leaded by Sodongpa, existed before Koryo existed at the same time.

Koryo literary man in that time learned and composed many different poetical style by their literary taste and an idea preference so many different kind's poetical style can be competed and created at the same time and place, and these things was meaning the development of early Koryo poetry world.

These variable poetical style in that time was consolidated to poetical style of Song dynasty through 12th century and the change and development in poetry world took the role that Koryo poetry literature could be prosperous.

By this reason, Koryo literary man tried to avoid only expressing beauty or formality, and tried to compose poetry based on reality. This is meaning that a Chinese poetry to Koryo literary man developed as everyday work. Koryo poetry literature developed through early Koryo is a part of preparing process to be unfolded a Chinese poetry history and is milestone telling that the study is not easy.

I. 머리말

우리 漢詩史의 흐름과 그에 따른 창작 경향의 변화는 이전부터 先人들에 의해 다양하게 언급되어 왔다.¹⁾ 선인들에 의해 언급된 우리 漢詩

史의 흐름은 대체로 신라 말 고려 초기의 晚唐風,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의 宋詩風, 조선 중기이후의 唐風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漢詩史의 흐름에 대한 先人들의 언급은 인상적이고 개략적인 단편적 서술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 漢詩史의 흐름을 설명한 여러 先人들의 공통된 논의라는 것에서, 또 우리 문학사의 중심 작가들이 當代 추구했던 공통적인 창작 경향이라는 점에서 후대의 연구자들이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자들은 漢詩라는 문학 갈래와 親緣性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와 함께, 그간 唐風과 宋風의 이원론적인 변화와 대립의 역사로 이해되어 온 우리 漢詩史의 흐름을 재정립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록 우리 漢詩史의 흐름에서 先人들이 언급한 하나의 詩風이 그 당대의 대표적인 창작 경향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 漢詩史를 唐風과 宋風의 이원론적인 변화와 대립의 역사로만 이해할 경우, 우리의 漢詩史는 先人들에 의해 언급된 하나의 詩風만으로 이어진 단선적인 역사였다는 인식의 오류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唐風이나 宋風으로 알려진 하나의 詩傾向이 바로 그 시기에 창작된 모든 漢詩가 갖는 보편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연구자들 대부분이 쉽사리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先人들의 언급은 그 시기를 선도했던 작가들이 보인 모습이며, 이러한 선도적인 작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각기 다양한 경향의 시를 창작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시

1) 이에 대한 先人들의 言及은 金萬重의 『西浦漫筆』, 許筠의 『惺叟詩話』·『鶴山樵談』, 李睟光의 『芝峯類說』등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金宗直의 『靑丘風雅』 「序文」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다. “得吾東人詩而讀之 其格律無慮三變 羅季及麗初 專習晚唐 麗之中葉 專學東坡 迨其叔世 益齋諸公 稍變舊習 裁以雅正 以迄于盛朝之文明 猶循其軌轍焉”

기에 상관없이 우리 先人들이 學詩의 궁극적인 목표로 杜甫를 상정했었다는 점이나 宋詩風이 詩壇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했었다고 알려져 있는 고려 말·조선 초에도 唐詩風의 시가 창작되었다는 점²⁾에서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당대 문단을 선도했던 작가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詩風을 수용하였고, 이것이 내적인 발전을 거쳐 당대 문단의 중심 사조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점은 당대를 선도했던 작가들이 기존의 詩風에 반하는 새로운 詩風을 추구했던 이유와 이러한 詩風의 변화가 당대 문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의문점은 우리 漢詩史의 詩風 변화가 그 내부의 자체적인 변화 욕구와 역량의 성숙에 의한 것이었느냐는 물음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이 글은 先人들이 우리 漢詩史에서 처음으로 詩風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언급한 고려 중기를 대상으로, 이 시기 새로운 詩風의 유입 경로와 수용의 원인 그리고 새로운 詩風의 수용이 우리 漢詩史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시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후 조선 중기에 일어난 또 한 번의 詩風 변화나 조선 후기에 나타난 다양한 漢詩 창작 경향 역시 고려의 詩風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漢詩史의 詩風 변화는 우리 漢詩史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필연적 결과이고, 그 변화의 동력 역시 우리 漢詩史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고려 중기의 詩風 변화는 이후 일어날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라 말과 고려 초·중기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료의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한계 속에서도 當代 새로운 詩風의 유입과 우리 漢詩史의 詩風 변화가 가지는 문학사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

2) 全松烈, 「朝鮮朝 初期學唐의 變貌 樣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 11~19쪽.

노력하였고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³⁾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과 先人들의 언급을 충실히 되새기면서 고려 중기 새로운 詩傾向의 流入과 그 유입이 우리 漢詩史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詩風 轉換期 이전의 상황과 詩文學

우리 문학사에서 漢詩가 문학으로써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崔致遠을 비롯한 통일신라의 여러 學人들이 賓貢諸子라는 이름으로 唐나라에 유학하여 직접 唐詩를 익혔던 통일신라 말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 唐나라의 國子監에 留學生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唐太宗 때부터였다고 생각되지만,⁴⁾ 신라인의 唐나라 유학 열기는 후기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해졌다. 신라 말의 僖康王 2년(837) 3월에는 唐나라의 國學에서 修學 중이던 신라의 유학생이 모두 216명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했고,⁵⁾ 金雲卿이 처음 唐나라의 賓貢科에 합격한 이후 唐나라 말 天祐年間까지 모두 58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며, 五代 梁唐 사이에 또 32명의 합격자가 있었다고 했으니⁶⁾ 신라 말의 唐나라 유학 열기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3) 이러한 연구 성과는 閔丙秀, 沈浩澤, 李東歡, 李鍾文, 李慧淳 등 여러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점차 정리되어가고 있다. 자세한 연구 성과물은 이 글의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4) 安鼎福, 『東史綱目』第 3, “新羅高句麗百濟 并遣子弟如唐入學 是時 帝大徵天下名儒爲學官 數幸國子監 使之講學 於是 四方學者雲集 三國亦遣子弟入學 東方學生之入中國 此其始也”

5) 『唐會要』卷 36, 「附學讀書條」, “又新羅差入朝宿衛王子 并准舊例 割留習業學生 並及先住學生等 其二百十六人請時服糧料”

6) 崔滄, 『東文選』卷 84, 「送奉使李中父還朝序」, “進士取人 本盛於唐 長慶初 有金雲卿者 始以新羅賓貢 題名杜師禮榜 由此以至天祐凡 登賓貢科者 五十有八人 五代梁唐 又三十有二人 蓋除渤海十數人 餘盡東土”

신라에서 唐나라의 국자감으로 유학을 보낼 경우 유학생들은 신라와 唐나라의 지원과 통제를 받았다고 보이는데⁷⁾, 이들은 주로 육두품 계급에 속하는 젊은 學人들이었다고 생각된다.⁸⁾ 이들은 말기의 唐나라에 들어가 그 當代의 詩風을 배웠기에 이들의 시는 자연히 當代 唐나라의 詩傾向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當代 唐나라의 詩風을 그 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중국인의 언어 감각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의 문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귀국 후 신라 詩壇을 선도하는 중심 작가군이 되었고 생각된다.

신라 말 詩文學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崔致遠·崔匡裕·崔承祐·朴仁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唐나라의 賓貢科에 합격한 賓貢諸子들로 신라 말기 문단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이 賓貢諸子들은 新羅를 이어 성립된 高麗에서도 王建을 도와 文翰의 職分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서도 문단을 선도하는 중심 작가가 되었다.

7) 崔致遠, 『東文選』卷 47, 「遣宿衛學生首領入朝狀」, “新羅國當國 差遣宿衛學生首領入朝 請附國子監習業 謹具人數姓名 分析申奏 如後學生八人崔嶺之等 大首領八人祈綽等 小首領二人蘇恩等 …… 買書金 則已均薄貲 讀書糧 則竊覲洪恩 且千里之行 聚費猶勞於三月 十年爲活 濟窮唯仰於九天 幸遇聖朝 誕敷文德 …… 特賜宣下鴻臚寺 淮去龍紀三年隨賀登極使判官 檢校祠部郎中崔元入朝 學生崔霽等事例 勅京兆府支給 逐月書糧 兼乞冬春 恩賜時服 所冀身資飽學 無憂餒在其中” 이 글을 보면 당대 신라에서 唐나라에 유학생을 보낼 경우 국자감에서 수업을 받게 해 달라는 청원과 인원 및 성명을 기록한 문서를 보냈음을 알 수 있고, 유학생들의 유학 경비 가운데 책값은 신라에서, 식비와 피복비는 唐나라에서 부담했으며 수업 연한이 10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三國遺事』卷 10, 「景文王」9年條의 “新羅當國 先具表奏宿衛習業學生四人 今錄年限已滿 伏請放還 謹錄姓名 奏聞如後”라는 기록을 보면 당대 유학생들은 양국의 합의에 의해 보내고 수용된 만큼 연한이 차 돌아올 때도 학생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에 절차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8) 통일신라 말 賓貢諸子들의 상황과 이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李慧淳 교수의 「新羅末 賓貢諸子の 詩에 대하여(『한국한문학연구』7집, 한국한문학회, 1984)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신라 말 詩文風을 선도하던 문인들이 쉽게 고려에 歸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가 敬順王의 투항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신라를 병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신라의 敬順王이 투항하자 그를 政丞으로 삼고, 慶州를 食邑으로 하사했다는 것은 고려의 신라 병합이 무력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고려에서 신라를 병합한 뒤 신라의 文士들을 開京으로 옮겨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⁹⁾은 신라 말 賓貢諸子를 중심으로 한 육두품 계급이 보다 손쉽게 고려에 歸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고려 왕조에서는 신라를 병합한 후 신라의 문사들을 敬順王과 함께 개경으로 옮겼는데, 그 문사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라 멸망 1세기 전인 文聖王 2년(840)에 唐나라에서 돌려보낸 質子와 學生의 숫자가 105명이었다¹⁰⁾는 것에서 통일신라 말 문인들의 수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라 말의 육두품 계급이 唐나라에 들어가 唐나라의 賓貢科에 합격하고자 했던 것은 엄격한 骨品制 사회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신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은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울분과 비애를 賓貢科에 합격함으로써 해소해 보려는 신분 상승의 욕구에서 唐나라 유학을 꿈꾸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이 唐나라에 가서 우선적으로 익힌 문학은 立身揚名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科文과 科詩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科詩·科文

9) 『高麗史』, 「世家」第 2, 太祖 18年, “冬十月壬戌 新羅王金傅 遣侍郎金封休 請入朝 王遣攝侍中王鐵侍郎韓憲邕等 往報 十一月甲午 羅王率百官僚 發王都 土庶皆從之 香車寶馬 連亘三十餘里 道路填咽 觀者如堵 沿州縣供億甚盛 王遣人問慰 癸卯羅王與王鐵等 入開京 …… 於是 拜金傅爲政丞 爲太子上 歲給祿千碩 創神鸞宮賜之 其從者 並收錄優賜田祿 除新羅國爲慶州 仍賜爲食邑”

10) 『舊唐書』卷 199, 「東夷 新羅條」, “長慶五年四月 鴻臚寺奏請 新羅告哀 質子及年滿合歸 國學生等共一百五人並放還”

등 科擧 합격을 위한 문학은 『文選』이 전범이었다.¹¹⁾

이런 賓貢諸子들의 특성은 그들이 말기의 唐나라에서 유학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 문단의 주된 경향이었던 晚唐의 詩文風에 가장 익숙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詩文風이 바로 晚唐의 그것과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¹²⁾ 즉 육두품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당대의 賓貢諸子들은 신라나 唐나라 어느 쪽에서도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창작한 시들은 신라와 唐나라 두 곳에서 겪는 외로움과 소외 같은 절실한 신변의 문제였고 懷古의 感想과 개인적 煩悶이 주된 정조를 이루게 된다.

『東文選』에는 당대 문인들의 시 59首가 실려 있는데, 崔致遠의 시가 29首로 가장 많고, 朴仁範과 崔匡裕, 崔承祐의 시가 각각 10首씩 수록되어 있다. 『大東詩選』에도 崔致遠의 시 14首, 崔承祐의 시 2首, 朴仁範의 시 3首, 崔匡裕의 시 3首가 실려 있어 崔致遠의 시가 가장 많다. 이 시들을 살펴보면 崔致遠을 제외한 다른 문인들의 시는 모두 7언율시인데, 이런 형식적 특성은 당대 문인들이 漢詩라는 문학 양식에 접

11) 金允植, 『雲養集』, 「答人論靑丘文章源流」, “在昔 三國中葉以後 公用文書 皆倣文選 如任強首崔文昌 其顯者也 至麗初猶然 而名臣章奏及碑版之作 往往有兩漢氣味 非後世所及”

-----, 『雲養集』, 「東鑑文鈔序」, “至元聖王時 始定讀書出身科 以博通五經三史爲雋 而尤用力於文選 蓋六朝以來 交隣事大之文 專向駢儷故也”

12) 지금까지 통일신라 후기 혹은 고려 전기의 詩文風은 賓貢諸子들의 영향으로 晚唐風을 띠는 것이 보편적 논의였으나, 이에 대해 민병수 교수는 ‘晚唐보다 六朝에 가까운 詩風이었다’고 했고, 이혜순 교수는 ‘賓貢諸子들의 詩風은 晚唐風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賓貢諸子들의 學詩가 六朝風이나 晚唐風보다 科詩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閔丙秀, 「高麗時代의 漢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李慧淳, 「新羅末 賓貢諸子의 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7집, 한국한문학회, 1984.

근해 가는 학습단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내용면에서도 대부분의 시가 객지생활의 외로움과 고뇌, 개인적 번민과 감상을 읊은 것으로 신분제 사회라는 당대 현실의 모순이나 고통 받는 민중의 삶으로 그들의 시선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麻衣難拂路岐塵 삼베옷에 갈림길 먼지 털기도 어려운 데
 鬢改顏衰曉鏡新 살쩍 세고 얼굴 늙어가 새벽 거울 늘 새롭네
 上國好花愁裏艷 당나라 좋은 꽃은 시름 속에 더욱 곱고
 故園芳樹夢中春 고국 동산 예쁜 숲은 꿈속에서나 봄을 맞네
 扁舟烟月思浮海 안개 낀 달밤엔 작은 배로 바다 떠갈 생각도 했지만
 羸馬關河倦問津 객지에서 야윈 말로 길 묻기도 지쳤다네
 祇爲未酬螢雪志 다만 아직도 학문의 큰 뜻 응답 받지 못했으니
 綠楊鶯語太傷神 푸른 버들 꺾꼬리 소리에 마음 너무 상하누나.

翬飛仙閣在青冥 훨훨 날 듯한 신선집은 푸른 하늘에 솟아 있으니
 月殿笙歌歷歷聽 달 속 궁전의 것대 노래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하네
 燈撼螢光明鳥道 반디처럼 흔들리는 등불 새 날 길을 밝혀 주고
 梯回虹影倒巖扃 무지갯 양 굽은 사다릿길 돌아 돌문에 닿아 있네
 人隨流水何時盡 흐르는 물 따르는 인생은 어느 때나 쉬려는가
 竹帶寒山萬古青 차가운 산 두른 대숲은 만고에 두고 푸르르네
 試問是非空色理 인간 세상 시비와 공색의 이치 물어보니
 百年愁醉坐來醒 인생 백년 시름에 취한 몸 앓은 채로 다 깨누나.¹³⁾

이 두 편의 시는 崔匡裕의 「長安春日有感」과 朴仁範의 「涇州龍朔寺閣兼柬雲栖上人」이다. 이 시 속에서 최광유는 唐나라에 유학 온 그 자신이 느끼는 고뇌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대비시켜 절실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 속에서 최광유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과거 급제라는 개인적 욕구뿐이었다. 짝 막힌 신라 사회나 어지러운 唐나라

13) 이 글에서 예로 든 시는 모두 『大東詩選』에서 선별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시에서는 별도의 출전을 표기하지 않는다.

의 정세는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박인범의 시도 경주에 있는 용사사를 찾아가 느낀 그 자신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우뚝 솟은 산꼭대기의 절에서 세상에 대한 번민을 씻어버리며 쓴 시이지만, 호쾌함이나 시원스러움보다 인생무상이라는 본원적인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시를 다시 살펴보면 화려한 수사나 애상적 정조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晚唐의 詩傾向과 유사하다¹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자의 절박한 심사를 시의 文面에 그대로 노출시켜 시의 표면에서 그들의 현실적 고뇌와 내면세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晚唐의 詩傾向과 일정한 거리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비록 賓貢諸子들이 晚唐의 詩風을 배웠고, 이에 익숙했지만 그들의 시는 晚唐의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특성이 이후 중국의 詩文學과 교감하며 발전하게 되는 우리 詩文學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Ⅲ. 詩風 轉換期の 상황과 詩文學

고려는 안으로 건국의 중심 세력인 신라 말의 豪族 聯合을 누르고 밖으로 새로운 국가의 국가적 위상을 확립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14) 당시 新羅의 賓貢諸子들이 접한 晚唐의 文人들로는 賈島·張喬·溫庭筠·羅隱·顧雲·皮日休·張籍·杜荀鶴 등과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창작 경향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이 가운데 溫庭筠과 같은 이는 唯美主義 系列의 작가로 평가받지만, 皮日休·羅隱·杜荀鶴, 聶夷中과 같은 이들은 당대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시로 지적하였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읊은 現實主義 系列의 작가로 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晚唐의 시가 모두 唯美的이거나 華麗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주의 계열의 시 경향은 당대를 주도하는 중심 사조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晚唐의 시 경향을 唯美的, 浪漫的 경향으로 단순화시켜 일원화한다.

안고 있었다. 고려가 건국될 당시(918) 중국은 唐나라가 멸망하고 五代의 혼란기(907~960)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當代 고려는 五代의 각 나라들을 대상으로 복잡하고도 미묘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왕권의 강화와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던 고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¹⁵⁾ 이에 따라 고려 태조 왕건은 재위 26년 동안 12회에 걸쳐 사절을 중국에 파견하였고¹⁶⁾ 이러한 외교 관계를 담당할 문사의 확보는 태조에게 시급한 일이었다. 따라서 신라 말의 관료들을 중앙 관료로 임명하여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 관계를 담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려 초기의 詩文風이 신라 말의 것과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崔瀼가 「送奉使李中父還朝序」에서 언급한 “五代梁唐 又三十有二人”¹⁷⁾이라는 부분이다. 五代의 첫 나라가 後梁(907~923)이고 그 다음이 後唐(923~936)이었는데, 최해의 언급대로라면 이 시기에도 중국에 건너가 과거를 보는 고려인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¹⁸⁾ 결국 최해의 말은 당나라 멸망 이후에도 고려의 문인들이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꾸준히 계속하였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류가 고려 詩文風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五代의 詩文風이 대체적으로 晚唐의 그것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¹⁹⁾

15) 羅鍾宇,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274~300쪽.

16) 李基白, 「高麗 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관계」, 『韓國文化院論叢』1, 梨花女大, 1959, 79쪽.

17) 앞의 각주 6번 참조.

18) 이해순 교수는 고려 전기의 문풍 형성에 미친 해외교류 양상을 고려인의 五代 賓貢科 급제와 歸化漢人, 使行으로 보았는데, 이 글은 이해순 교수의 논지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 李慧淳, 「高麗初期의 文風과 海外交流」, 『이화여대 문논집』19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9.

19) 晚唐과 五代의 文學的 類似性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밝히고 있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은 고려초기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해온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고려시대 중국인의 귀화는 고려 태조 2년(919)부터 시작되어 충렬왕 13년(1287)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157명에 이르는데,²⁰⁾ 이 가운데 五代의 문인으로는 侁彦規, 朴巖, 雙冀, 雙哲 4 사람뿐이지만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의 실록이 불에 타 다시 편찬됐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화해 왔으리라 볼 수 있다. 五代의 인물로 고려에 귀화한 이들은 모두 문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귀화 후에도 역시 문학으로 고려에 이바지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雙冀는 고려 과거제도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라를 이어 고려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신라 말의 詩文風은 고려 건국 41년째인 光宗 9년(958) 後周에서 귀화한 雙冀의 건의에 의해 科擧制度가 시행되면서부터 보다 화려하고 수식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쌍기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과거의 지공거를 역임하였는데,²¹⁾ 이 때 그가 五代文學이라는 자신의 문학적 배경을 기준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추정은 光宗의 과거 실시가 後進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고

다. 張基權 譯, 『中國文學史』,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72. 211~213쪽. 許世旭, 『中國古代文學史』, 法文社, 1986. 349~350쪽.

20) 朴玉杰, 「高麗時代 歸化漢人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이 논문의 제 1장 漢人の 歸化 부분에 漢人の 歸化 事例와 時期, 人員, 動機, 中國의 原 出身地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1) 『高麗史』卷 73, 「選舉」1, 科目 1.

22) 雙冀의 문학적 경향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後周의 文士였고, 세 차례나 과거의 지공거를 역임하면서 첫 해인 光宗 9년(958) 5월의 과거에서 제술과 2명 명경과 3명을 뽑은 뒤, 光宗 11년과 12년의 과거에서는 각각 제술과 7명 명경과 1명을 뽑았다는 사실과 첫 해에는 시무책을 부과했으나 11년부터의 과거에는 시무책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기록에서 그의 문학적 경향이 詞賦를 중시하는 五代의 唯美主義에 보

文風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浮華한 文章을 짓게 하여 폐단을 자초하였다는 비판²³⁾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과거제도의 실시는 기존의 詩文學 경향을 점차 부화한 형식주의 문학으로 바꾸는 예기치 못한 반작용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런 경향은 과거제도가 확립될 수록 점점 강화되었다고 보인다.²⁴⁾

과거제도의 실시로 인해 일어난 詩文風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당대의 문인들도 비판적이었다.²⁵⁾ 이렇게 당대 고려의 문인들이 科文·科詩의 영향과 이로 인해 부화해져 가는 文風에 대해 비판하게 된 것에는 그들의 사상적 기저가 이전 시기 보다 유학 사상에 더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⁶⁾ 고려 문인들의 유학관은 성종 5년(986)을

다 가깝지 않은가 생각한다.

23) 徐居正, 『東國通鑑』卷 17, 文宗 22年條, “高麗開國 庶事草創 未遑文教 光宗好文 雖委任雙冀 然其文辭 病於浮藻 不足爲後學模範”

金富儀, 『東文選』卷 42, 「辭知貢學表」, “遠自祖宗之時 已尊聖賢之教 然賢關未闢 城闕有挑撻之徒 而古學不興 詞賦取雕蟲之末”

李齊賢, 『高麗史』卷 2, 「世家」, 光宗條 “光宗之用雙冀可謂立賢無方乎 …… 若其設科取士 有以見光宗之雅 有用文化俗之意 而冀亦將順以成其美 不可謂無補也 惟其倡以浮華之文 後世不勝其弊云”

24) 이러한 경향을 부추긴 것 중의 하나가 成宗 때의 月課法이라고 생각된다.

『高麗史』卷 3, 「世家」成宗條, “十四年春二月己卯 教曰 …… 予恐業文之士 纔得科名 各牽公務以廢素業 其年五十以下 未經知制誥者 翰林院出題 令每月進詩三篇賦一篇 在外文官 自爲詩三十篇賦一篇 每抄附計吏以進翰林院 品題以聞”

25) 대표적인 글이 成宗 初 崔承老가 왕에게 올린 글이다. 이 글에서 崔承老는 과거제도 시행에 따른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高麗史』卷 93, 「列傳」卷 6, 崔承老條 “及雙冀見用以來 崇重文士 恩禮過豐 由是非才濫進 不次驟遷 未浹歲時 使爲卿相 或連宵引見 或繼日延容 以此圖歡怠於政事 …… 所以後生爭進 舊德漸衰 雖重華風 不取華之令典 雖禮華士 不得華之賢才”

26) 詞章과 儒學의 갈등, 儒敎의 文學觀의 대두에 관해서는 李鍾文 교수의 「高麗前期 漢文學 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

진후로 설립된 국자감과 崔冲을 비롯한 12명의 학자들이 私學 12徒를 설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이는데,²⁷⁾ 최종의 증손 崔淪의 글은 당대의 부화한 문풍에 대한 유학 사상에 입각한 문인들의 비판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⁸⁾

수식 위주의 문학 경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睿宗·仁宗 年間(1105~1146)을 거치면서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²⁹⁾ 이런 현상은 이 당대 官僚·文人들이 이전 시기의 官僚·文人들 보다 스스로 儒學者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적 각성이 과거를 위한 형식 위주의 부화한 詩文學 경향을 비판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³⁰⁾

다.

27) 私學의 설립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최종이 관직에서 은퇴한 이후인 문종 9년(1055) 7월 이후로 보고 있다.

『高麗史』卷 74, 「志」28, 選舉 2, 學校 私學.

28) 『高麗史』卷 95, 「列傳」卷 8, 崔冲條. “淪登第事睿宗 時國家閑暇 王尙詞賦好遊宴 嘗宴西京大同江 與侍臣唱和 淪亦以知制誥從 上書諫曰 昔唐文宗 欲置詩學士 宰相奏 詩人多輕薄 若承顧問 恐撓性聰 文宗乃止 帝王當好經術 日與儒雅 討論經史 咨諷政理 安有事童子雕篆 數與輕薄詞臣 吟風嘯月 以喪天衷之淳正耶 王優納之 有一詞臣 乘隙曰 淪所爲儒雅 除臣等別有何人 淪短於詩 故有此言 王怒 左遷春州使”

29) 郭東珣, 『東文選』卷 36, 「又謝幸學表」, “竊以天下均是性也 性非教化不明 王道必由學乎 學以經術爲本 豈一日而廢此 自三代以共之 洪惟先代之右文 高出百王之稽古 奮然英斷 闢此賢關 專六經以黜雕虫篆刻之工 置博士以嚴月試季考之法”

金端, 『東文選』卷 35, 「謝釋奠陪位表」, “臣湖海遠域 斗筲微生 粗讀古人之書 知尊中國之聖 雕虫篆刻 所謂文史之不爲 出幽遷喬 庶幾學者之善變 屬遣國之子弟 令受業於京師”

30) 앞에서 살펴본 崔承老나 崔淪의 논의가 文風을 매개로 새로이 진출하는 신진 문사들을 견제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신진 문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文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다는 것 역시

이런 고려 문인들의 비판 의식은 그들 스스로의 자각과 함께 宋나라와의 文物 交流를 통해서도 점차 고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와 宋나라의 국교는 고려 건국 45년 光宗 13년(962) 宋나라 건국 3년에 체결되었다. 고려에서 宋나라에 李興祐를 사신으로 보내면서 시작된 외교관계는 成宗 13년(994) 宋나라와 공식적인 국교를 단절하고, 文宗 25년(1071) 국교관계를 재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宋나라의 마지막 사신이 고려에 파견된 明宗 3년(1173)까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가 宋나라와 유대를 맺고 문물을 교류하는 동안 비록 97년의 국교 단절 기간이 있었지만 고려와 宋나라의 교류는 국교단절과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것은 고려가 宋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이유가 정치적·군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문명의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³¹⁾ 이 점은 국교 단절기간 중에도 여전히 宋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宋나라에서 사신이 왔으며, 상인들의 교류가 활발했었다³²⁾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고려에서는 宋나라와 사신을 왕래하면서 宋나라의 국자감에 유학생

이들의 文風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 『高麗史』卷 8, 「世家」, 文宗 12年 8月, “八月乙巳 宋商黃文景等 來獻土物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國家結好北朝 邊無警急 民樂其生 以此保邦 上策也 昔庚戌之歲 契丹問罪書云 東結構於女眞 西往來於宋國 是欲何謀 又尚書柳參奉 使之日 東京留守問 南朝通使之事 似有嫌猜 若泄此事 必生罅隙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況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이 글에서 당시 고려인들이 宋과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발달된 문물예약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식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32) 金庠基, 『高麗時代史(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4.)』의 158 ~ 161쪽에 있는 宋商來航表에 宋商의 高麗 往來에 관한 내용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을 파견하였는데,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景宗 元年(976)이 처음이다.³³⁾ 이 이후로도 고려에서는 대략 4차례에 걸쳐 宋나라의 국자감에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肅宗 4년(1099) 宋나라에서는 정식으로 고려 유학생의 빈공과 응시를 허락하였다. 이후 睿宗 10년(1115)에는 다섯 명의 고려인이 宋나라의 태학에 들어갔다가 이 가운데 세 명이 상사에 급제하는 일도 있었다.³⁴⁾

고려와 宋나라의 사신과 문물 교류 그리고 고려인의 宋나라 국자감 유학은 고려의 문인·학자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문학 경향에 대해 눈뜨게 해 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당대 고려의 문인 학자들은 고려 내부에 만연해 있던 과거를 위한 수식 위주의 유평적 문학 경향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부단히 새로운 문학 양식을 찾고 있었다. 이 때 宋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새로운 詩文學 경향은 이들에게 하나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당대 고려 문인들의 각성과 필요가 자연스럽게 宋나라의 새로운 시풍을 고려에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宋나라의 詩傾向이 언제 고려에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조합하여 정리해 보면 대체로 文宗 25년(1071) 고려가 宋나라와 국교를 재개하고 빈번하게 사신을 왕래하면서부터 고려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³⁵⁾

33) 『高麗史』卷 2, 「世家」, 景宗 元年, “是歲遣金行成如宋 入學國子監”

34) 『高麗史』卷 74, 「志」卷 28, 選舉 2, 科目 2, “景宗元年 遣金行成 如宋入學國子監 二年行成在宋登第 五年遣崔罕王琳 如宋入學 十一年 罕琳登賓貢科 授秘書郎 穆宗元年 金成積入宋登第 肅宗四年二月 宋詔許 舉子賓貢 睿宗十年七月 遣金端甄惟底趙奭康就正權迪 如宋赴大學 十二年 迪奭端 登上舍及第”

35) 국교 재개 이전에도 고려와 宋나라의 사신 교환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교 재개도 宋나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국교 재개 이후인 宣宗 7년(1090) 고려는 宋나라에서 『文苑英華集』을 들여왔고, 선종 10년(1093)에는 宋나라에서 고려로 蘇軾의 서적을 수출할 수 없다는 논의가 제

고려와 宋나라의 국교가 光宗 13년(962)부터 이루어졌었고, 景宗 元年(975)에 고려 문인의 국자감 파견이 있었지만 宋나라 초기에는 宋나라 안에서 宋詩風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에는 오히려 晚唐風의 여맥을 잇는 西崑派가 중심이 되어 詩壇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宋나라 안에서 宋詩다운 宋詩風의 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宋나라 안에서 본격적으로 宋詩風이 확립된 것은 梅堯臣(1002~1060)·蘇舜欽(1008~1048)·歐陽修(1007~1072)·邵雍(1011~1077)·王安石(1021~1086) 등이 나와 杜甫와 韓愈의 문학을 尊崇하고 詩風 改革에 힘쓴 뒤, 蘇軾(1036~1101)이 나와 西崑派의 詩風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詩風을 형성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곤체가 宋나라를 휩쓸고 있을 무렵에도 王禹偁과 林逋를 중심으로 서곤체에 반발하는 시경향이 있었으나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宋의 仁宗 年間(1022~1063)에 접어들면서 매요신과 소순흠이 나와 시의 혁명을 부르짖으며 서곤체의 詩風을 반대하고, 歐陽修가 나와 이들의 뒤를 따르면서 宋代의 詩風은 일변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곤체의 농염하고 난삽하며 괴벽한 詩風을 平淡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받는데, 이런 宋詩風을 완성한 사람으로 東坡 蘇軾을 손꼽는다.³⁶⁾ 소동파는 구속받지 않는 활달함과 넓은 기상으로 호쾌한 시를 창작하여 宋詩風을 완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仁宗 嘉祐 2年(1057) 禮部試에 應試하여 主司인 歐陽修에게 인정받으면서 문명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宋나라에서 宋詩다운 宋詩風이 등장한 시기는 11세기 초이고, 확립된 시기는 대략 11세기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기된다. 이때 宋나라에서 『蘇軾·李白仙詩卷』이 출간된다.

36) 全祖望, 『鮚埼亭集 外編』卷 26, 「宋詩紀事序」, “宋詩之始也 楊劉諸公最著 所謂西崑體者也 說者多有貶辭 然一洗西崑之習者歐公 而歐公未嘗不推服楊劉 猶之草堂之推服王駱 始知前輩之虛心也 慶曆以後 歐梅蘇王數公出 而宋詩一變 坡公之雄放 荊公之工練 並起有聲”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高麗史』 「列傳」朴寅亮條의 기록³⁷⁾과 王士禎의 『香祖筆記』³⁸⁾ 및 『東人詩話』의 기록³⁹⁾을 살펴보면 宋詩風에 대한 고려 문인들의 인식과 고려에의 소개는 宋나라 내부의 詩文學 변화 추세와 그다지 멀지 않은, 소동파의 생존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11세기 중반 이후 고려에 처음으로 宋詩風이 소개되었고, 그것은 당대 고려인의 사상적·문학적 경향과 맞아 떨어져 호응을 받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 宋詩風은 고려 안에서의 내적인 발전을 거쳐 12세기에 들어오면서 당대 고려에서 가장 유행하는 하나의 詩傾向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 보인다.

고려 중기 詩傾向의 변화에 대해서는 12세기를 살다 간 林椿의 글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林椿이 東坡의 글을 읽은 적은 없지만 자신의 세대에 동파의 글이 유행하여 시대의 풍상이 되었다⁴⁰⁾고 한 것으로 보아 임춘의 생존 당시 蘇東坡 중심의 宋詩風은 고려 문단의 대표적 詩傾向으로 자리잡고 그 세력을 확산하던 시기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임춘의 이야기는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李仁老(1152~

37) 『高麗史』, 「列傳」卷 8, 朴寅亮條, “三十四年 與戶部尙書柳洪 奉使如宋 …… 有金覲者 亦在是行 宋人見寅亮及覲所著尺牘表狀題詠 稱嘆不置 至刊二人詩文號小華集”

38) 王士禎, 『香祖筆記』卷 9, “昔閱高麗史 愛其臣金富軾之文 又兄弟 一名軾 一名轍 疑其當宣和時 去元祐未遠 何以已竊取眉山二公之名 讀遊宦記聞云 徐兢以宣和六年使高麗 密訪其兄弟命名之意 蓋有所慕 文章動蠻貊 語不虛云”

39) 徐居正, 『東人詩話』卷 上, “高麗文士 專尙東坡 每及第榜出 則人曰三十三東坡出矣 高元問 宋使求詩 學士權適 贈詩曰 蘇子文章海外聞 宋朝天子火其文 文章可使爲灰燼 千古芳名不可焚 宋使歎服 其尙東坡可知也”

40) 林椿, 『東文選』卷 59, 「與眉叟論東坡文書」, “僕觀近世 東坡之文 大行於時 學者誰不服膺呻吟 然徒翫其文而已 …… 然則 學者但當隨其量 以就所安而已 不必牽強模寫 失其天質 亦一要也 唯僕與吾子 雖未嘗讀其文 往往句法已略相似矣 豈非得於其中者 闔與之合耶 近有數篇 頗爲具體今寄去 幸觀之以賜指教 不具”

1220)나 崔滋(1188~1260)에게서도 볼 수 있으며,⁴¹⁾ 이후 李奎報(1168~1241)에 가서는 동파 중심의 宋詩風이 당대 詩壇의 대표적 경향이 되어버렸다는 것⁴²⁾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춘이 스스로 “동파의 글을 읽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나, 이규보가 “해마다 과거 합격자가 발표된 뒤에 사람들이 올해에 또 33인의 동파가 나올 것”이라고 한 것은 동파를 전범으로 한 宋詩風의 시가 당대의 주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詩壇의 기저에 여전히 다양한 경향의 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문인 개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이라는 개인적 역량과 함께 과거 급제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당대 문인들의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시를 보도록 한다.

桃花紅雨鳥嘯嘯	복사꽃 붉은 비 속 새들은 재잘재잘
繞屋青山閒翠嵐	집을 두른 푸른 산은 여기저기 아지랑이.
一頂烏紗慵不整	이마 한 편 검은 사모 귀찮아 그냥 둔 채
醉眠花塢夢江南	꽃 핀 언덕 취해 누워 강남을 꿈꾸노라.

李杜啁啾後	이백, 두보 시를 읊고 떠나간 뒤에
乾坤寂寞中	천지는 적막 한 그 속에 잠겨 있고

41) 李仁老, 『破閑集』卷 上, “琢句之法 唯小陵獨盡其妙 …… 及至蘇黃 則使事益精 逸氣橫出 琢句之妙 可以與小陵並駕”

崔滋, 『補閑集』卷 中, “李學士眉叟曰 杜門讀蘇黃兩集 然後語迥然韻鏘然 得作詩三昧 …… 今觀眉叟詩 或有七字五字 從東坡集來 觀文順公詩 無四五字奪東坡語 其豪邁之氣 富贍之體 直與東坡忽合”

42)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卷 21, 「全州牧新雕東坡文集跋尾」, “夫文集之行乎世 亦各一時所尚而已 然今古已來 未若東坡之盛行 尤爲人所嗜者也 豈屬解贍富用事恢博 滋液之及人也 周而不匱故歟 自士大夫 至于新進後學 未嘗斯須離其手 咀嚼餘芳者 皆是”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卷 26, 「答全履之論文書」, “方學爲詩 則尤嗜讀東坡詩 故每歲榜出之後 人人以爲 今年又三十東坡出矣”

江山自閑暇 강산은 그냥 그저 한가로운 채
片月掛長空 조각달만 빈 하늘에 걸려 있구나.

鳳城西畔萬條金 궁성 저편 두둑 위에 노랗던 수만 가지
句引春愁作暝陰 봄 시름을 끌어안고 흐린 그늘 지은 채로
無限狂風吹不斷 끝도 없는 미친 바람 쉬지 않고 부는 속에
惹煙和雨到秋深 안개 끼고 비 어울려 깊은 가을 맞게 됐네.

이 세 편의 시는 鄭知常의 「醉後」, 李奎報의 「晚望」, 陳滸의 「柳」이다. 첫 번째 시는 정지상의 「醉後」인데, 정지상은 仁宗 13년(1135)년 세상을 떠난 인물이니 고려에 宋詩風이 유입될 당대의 시인이다. 이 시는 늦봄의 화사한 정경을 표현한 전반부와 그 속에서 취흥에 젖어있는 작자의 모습을 형용한 후반부로 짜여 있는데, 술에 취한 시인의 모습과 그 몽환적 분위기를 잘 살려 쓴 시이다. 고려조 唐詩의 최고봉이라는 후대의 평가에 걸맞게 뛰어난 수사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시는 이규보의 「晚望」이다. 이규보는 毅宗 22년(1168)부터 高宗 28년(1241)까지 살았으니 동과 중심의 宋詩風이 완전한 시대의 조류가 된 시기의 인물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규보는 天質에 바탕을 둔 개성의 발현을 추구했던 인물답게 소동파의 추구라는 시대적 조류를 넘어서서 최상의 시인으로 이백과 두보를 꼽고 있다. 이 시에서 이규보는 이백과 두보가 사라진 뒤 제대로 자연을 묘사할 수 있는 시인이 없어 천지와 강산이 한가롭고 적막하다고 하여 이백과 두보를 최상의 시인으로 인정하였다.

마지막 시는 진화의 「柳」이다. 진화는 고려 神宗(1200)무렵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니 이규보와 같이 소동파 중심의 宋詩風이 시대의 조류가 되었을 무렵의 시인이다. 이 시는 버들을 대상으로 읊은 영물시이지만 버들을 다분히 情意的 존재로 인격화하고 있다. 만약 버들을 인격화한 것이라면 ‘鳳城’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늙어 가는 궁녀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는 궁성

안에 있으면서도 임금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시름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끝내 늙어버린 궁녀의 모습을 버들에 비유하여 묘사한 시가 된다. 따라서 이 시는 情態的 수사를 중심으로 하여, 氣象과 意趣를 중시하는 宋詩風과 일정한 거리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본 몇 편의 시가 당대의 전반적인 시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정지상을 넘어 이규보와 진화에 오는 동안 이들의 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소동파 중심의 宋詩風이 점차 시대적 조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본 시와 같이 당대의 보편적 시 경향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다양한 시가 동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고려 중기의 詩壇을 단순히 宋詩風 하나로만 단선화하여 정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과 함께 고려 詩壇의 발전이 단순히 중국 詩風의 유입이나 중국의 자극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고려 문인들 스스로의 문학적 역량의 성숙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高麗朝 詩風 轉換의 意味

11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고려에 소개된 宋詩風은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12세기를 거치면서 고려 詩壇의 주된 詩傾向으로 자리잡게 된다. 빈번했던 宋나라 사행이나 宋나라와의 문물 교류가 고려의 宋詩風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대 고려의 문인들이 자신들이 전해들거나 접한 宋詩風의 정립에 자극 받고 그 詩風을 수용하려 한 것은 새로운 詩文學 경향을 추구했던 그들의 의식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고려 왕조가 성립된 뒤 고려의 중앙 관료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신라 말 賓貢諸子를 중심으로 한 육두품 계급이었다. 이들은 국가 제도의 정비와 외교 관계에서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고려의 기틀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고려 건국 초기의 文風은 비록 신라 말의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의식세계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당연히 신라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唐나라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진 賓貢諸子들의 경우 이러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고려의 관료로 변신한 賓貢諸子들은 그 자신들이 이미 접했거나 경험한 동아시아 문명의 보편화된 규범을 수용하여 고려에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이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신분제 사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내부적으로 고려 건국의 중심 세력인 신라 말 豪族 聯合을 누르고 왕권을 확립해야 하는 고려 초기의 임금들과 일부 맞아 떨어졌다고 보인다. 특히 중세기 숙련된 문화적 교양의 습득과 활용 여부를 시험하는 과거제도는 고려의 임금과 신라 말 육두품 계급의 의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골품제도를 청산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 체제를 확립하여 지방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는 과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물론 과거제도는 그 시행 초기부터 내외의 반발을 받았다. 이 반발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거제도의 성격 때문에 과거제도 자체나 과거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이러한 반발은 과거제도 실시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⁴³⁾ 하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의 비판이나 문풍의 부화를 근심하

43) 과거 제도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崔承老의 경우와 같이 당시 광종이 능력이 부족한 쌍기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문제가 많았다는 것. 두 번째는 李齊賢의 경우와 같이 쌍기가 부화한 문제를 창도하여 후대에 많은 폐단을 남겼다는 것. 세 번째는 李知白의 경우와 같이 지나치게 중국을 숭앙하여 백성들의 기본 정서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 가운데 특히 광종 당대의 비판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발이나 소수 勳臣 세력에 의한 기득권 유지 방편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는 학자들의 비난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제도는 계속 되었고, 당대 官界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 되었다.

성종 5년(986)을 전후로 설립된 국자감은 과거제도를 더욱 뒷받침하게 되었고, 이후 만들어진 私學 12徒는 과거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관리 선발의 관문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과거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어 명경과와 제술과에서 진사를 선발하였다. 이 과거를 통해 등장한 문인 관료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고려의 詩文은 과거 합격을 위한 형식위주의 詩文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詩文의 변모 발전과 함께 고려의 사상계도 스스로 내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후대 학자들로부터 海東公子로 불리며 儒宗으로 인정받는 崔冲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충의 학문은 경학 중심이되 四書의 주안처가 집약되어 있었고, 덕성의 함양에 주목하되 心性·性命論의 심화에 착안하고 있으며, 禮敎秩序가 존중된 것이었다. 이런 최충의 학문 경향은 宋代 성리학과 유사한 것이지만 宋代 성리학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보다 그의 생몰 연대가 빠른 것으로 보아 당대 고려의 유학 수준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⁴⁴⁾

이런 내부적 요인과 함께 고려 유학의 발전에는 宋나라 유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는 景宗 元年(976)부터 宋나라의 국자감에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肅宗 4년(1099) 宋나라에서는 정식으로 고려 유학생의 빈공과 응시를 허락하였다. 이후 睿宗 10년(1115)에는 다섯 명의 고려인이 宋의 대학에 들어갔다가 세 명이 상사에 급제하는 일도 있었다. 당대 宋나라에 유학간 이들의 상당수가 고려로 돌아온

44) 洪良浩, 『耳溪集』卷 15, 「文憲書院九齋記」, “先生生先於濂洛諸賢之世 而獨倡聖學 東方之人 始知儒道之重 其功大矣 而至若修道率性誠明等語 乃中庸之辭也 中庸之表章 始自程子 而先生乃以名齋而教學者 則其深得聖人傳道之微言 而暗合於程朱之旨”

뒤 經筵에서 열렸던 경학 강론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⁴⁵⁾

이런 고려의 문화적 발전은 당대의 문인 학자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다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의 정치 이념을 뒷받침하며 개인적인 실천을 강조하던 유학 사상이 체계화되고 확대되면 될수록 유풀적이고 형식적인 詩文學 경향은 부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詩文學 경향에 대한 추구는 이런 고려 문인 학자들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고려의 문인 학자들은 11세기 중엽에 소개된 宋詩의 창작 경향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어 고려의 문인들이 태자와 함께 元나라에 들어가 직접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자신들의 학문을 심화시키게 된 12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宋詩風은 고려의 주된 시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시를 보도록 한다.

草箔遊魚躍	풀 통발엔 고기 마냥 뛰며 노닐고
楊堤候鳥翔	버들 뚝엔 철새들이 날아다니네.
耕臯菖葉秀	밭 두둑엔 창포 잎이 우뚝 자랐고
饁畝蕨芽香	들밥 먹는 이랑에는 고사리 싹 향기롭네.
喚雨鳩飛屋	비 오려나 비둘기는 집 주위 날고
含泥燕入樑	진흙 물고 제비들은 들보에 드네.
晚來茅舍下	느즈막히 초가집에 돌아와서는
高臥等羲皇	높이 베개 베고 보니 복희씨 땀세.

頭流山迥暮雲低	저녁 구름 낮은 아래 두류산 아득한데
萬壑千巖似會稽	많은 골짜기 술한 바위 회계산 비슷하네.
策杖欲尋青鶴洞	지팡이 짚어가며 청학동 찾아보지만
隔林空聽白猿啼	숲 건너에 부질없이 흰 잣나비만 울고있네.
樓臺縹緲三山近	누대가 아득하니 삼신산에 다가섰고

45) 李鍾文, 「高麗 前期의 文風과 金富軾의 文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8~12쪽.

苔蘚依倚四字題 이끼 속 희미하게 네 글자만 남았으니,
 始問仙源何處是 이제야 물어 보네 무릉도원 어디인가
 落花流水使人迷 복사꽃 흐르는 물 사람들을 홀리누나.

城中蠶婦多 성안에는 누에치는 아낙도 많고
 桑葉何其肥 뽕잎은 어찌 그리 잘도 자랐다.
 雖云桑葉少 뽕잎이 적다고 말들 하지만
 不見蠶苦飢 누에가 주리는 것 보지 못했네.
 蠶生桑葉足 누에가 알 깎을 땐 뽕잎 많지만
 蠶大桑葉稀 누에가 커가니 뽕잎 준다네.
 流汗走朝夕 온종일 땀 흘리며 분주하지만
 非緣身上衣 제 입을 옷 때문이 아니로구나.

이 세 편의 시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하여 작자의 幽趣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객관적 관찰과 사실적인 묘사의 추구, 다양한 시적 題材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宋詩風의 영향을 찾을 수 있어, 고려 중기 이후 점차 시대의 조류로 자리잡고 있는 宋詩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는 金克己의 「田家四時」4首 중 첫 번째 ‘春’이다. 이 시에서 김극기는 田家의 봄에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시 속에 옮기고 있다. 이 시에서 김극기가 시적 주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적 주체와 의식적으로 밀착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이 시의 시적 주체는 田家의 삶을 경험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이 시는 고려시대의 농촌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김극기의 시가 우리 민족의 삶의 현장, 특히 고려 향촌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는 李仁老의 「游智異山」이다. 이 시는 이인로가 지리산을 유람하며 쓴 시인데, 지리산이라는 현실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만들어

유람의 흥취를 읊고 있다. 지리산의 먼 곳에서부터 청학동을 찾아들지만 결국 상상의 공간인 청학동을 찾지 못한다는 이 시는 '신선의 영역·이상의 공간'을 우리나라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이 시는 우리나라의 지명과 전고를 시적 공간으로 수용하고 있어, 우리 것에 대한 주체적 각성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 시는 李穡의 「蠶婦」이다. 이 시는 노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누에치는 아낙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가 지니고 있는 유교적 애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현실 비판의식을 당대의 사회구조나 봉건체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해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당대 사회의 지배계층에 속해 있던 작가가 그 자신의 시선을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렸다는 것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나름대로 우리의 삶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宋詩의 창작경향으로 읊어낸 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 편의 시가 바로 고려 중기 이후 변모된 경향의 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전까지의 시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漢詩史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시도의 하나로 의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詩傾向이 반드시 당대 고려의 문인들에게 대두된 宋詩風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단언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당대 문인들의 내적인 성숙과 그들이 접한 宋詩風이라는 새로운 詩傾向은 그들이 창작하는 詩文學이 더 이상 유평적이거나 형식적인 틀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들의 시선을 삶의 공간인 현실과 생활의 주변으로 이끌어갔다. 이에 따라 이후 우리 漢詩史에서는 점차 현실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시들이 등장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적

언어를 시어로 차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自主的 文化 意識과 함께 시 속에서 볼 수 있는 慕華意識은 우리 것에 대한 심화된 주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詩文學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되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V. 맺음말

고려는 통일신라 이후 이어져 내려오던 전대 詩文學의 창작 경향을 이어 받으며 자체 내의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고려 사회의 사상적·문화적 발전과 그 축을 같이하며 계속되는데, 중국에서 자리잡은 얼마 뒤 고려에 소개된 宋詩風은 이 변화와 발전을 부추기는 한 요소였다. 11세기 중반 이후 고려에 소개되었다고 보이는 宋詩風은 이후 12세기를 거치면서 고려 漢詩의 주된 창작 경향으로 자리잡으며 발전하게 된다.

11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宋詩風의 유입으로 고려에는 이전부터 전해 온 육조시대의 詩風과 晚唐의 詩風을 중심으로 한 唐詩風 그리고 소동파를 중심으로 한 宋詩風이 혼재하게 되었다. 당대 고려의 문인들은 자신의 문학적 취향과 사상적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경향의 시를 익히고 지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詩文學 경향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경쟁하며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전기 詩壇의 발전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당대 詩壇에서 전개된 다양한 詩風은 12세기를 거치면서 소동파를 전범으로 한 宋詩風 위주로 정비되는데, 이런 詩壇의 변화와 발전은 고려 詩文學이 그 뿌리를 보다 단단하게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고려의 문인들은 이전과 같은 유희적이거나 형식적인 詩文學에서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시를 창작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문인들에게 漢詩가 보편화된 일상적 행위로까지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 전기를 거치며 새롭게 발전한 고려의 詩文學은 앞으로 전개될 우리 漢詩史를 준비하는 과정이면서, 우리 漢詩史가 가야할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高麗朝(Koryo dynasty), 詩風(a poetical style), 漢詩(a chinese poetry), 晚唐風(a poetical style of late Tang dynasty), 宋詩風(a poetical style of Song dynasty)

참고문헌

-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4.
- 羅鍾宇,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閔丙秀, 「高麗時代の 漢詩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朴玉杰, 「高麗時代 歸化漢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沈浩澤, 『高麗中期 文學論研究』,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院, 1991. 1.
- 李基白, 「高麗 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관계」, 『韓國文化院論叢』1, 梨花女大, 1959.
- 李東歡, 「고려전기의 교육과 문화」, 『한국사』17, 국사편찬위원회, 1994.
- 李鍾文, 「高麗 前期의 文風과 金富軾의 文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 「高麗前期 漢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李慧淳, 「新羅末 賓貢諸子の 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7집, 한국한문학회, 1984.

-----, 「高麗初期의 文風과 海外交流」, 『이화어문논집』19집,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1989.

-----, 「고려 文宗시의 문학과 그 문학사적 의의」, 『千峰 李能雨博士七旬紀念論叢』, 1990.

張基槿 譯, 『中國文學史』,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72. 211~213쪽.

全松烈, 「朝鮮朝 初期學唐의 變貌 樣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

許世旭, 『中國古代文學史』, 法文社, 1986.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